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이 배 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기념절 노래 가사를 보면 제1절은 한글은 문화의 타전, 2절은 민주의 근본, 3절은 생활의 무기라고 한글의 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로 마무리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참모로 위대한 창제물로 그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교육강국시대를 열었고, 한류시대도 IT시대도 열어 올 수 있었다. 인류 최고의 8000개를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서의 자랑도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한글의 큰 의미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 분이 항상 지냈던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감동을 자아낸다. 가슴이 따

## 세종대왕의 한글정신에서 찾는 교훈과 지혜

뜻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감싸고 챙겨 주어야 할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아이도 눈에 보여 부모를 찾을 때까지 관에서 잘 보호하라는 세심한 배려, 1426년 아이를 출산한 여중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내리라고 간곡히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 노비 출산휴가도 이후 1430년에는 산전 휴가한 달이 더 추가되더니 1434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에게도 산후 휴가 한 달을 주어 부부 합산 16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내리도록 했으니,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오로지 세종대왕의 따뜻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존중하는 깊은 바탕에서 독창성과 자긍심을 갖는 일에도 주력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를 도덕가가를 만들기 위해 국시로 정했지만, 세종은 부단히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농법서인 '농사직설', 우리 음악으로 구성된 '종묘제례악', '용비어천가' 등 우리 문화의 독자적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가장 큰 민족적 성과가 한글 창제로 이어진 것이다.

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 얻은 해안을 통

해 즉위하자 집현전을 궁궐에 설치하고, 인간으로서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 해서 는 안 될 일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세움으로써, 절제와 자정 능력을 스스로 키워 나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선왕조 초기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과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통과 미래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라의 기반을 굳건하게 다져나갔던 것이다.

한편 한글 창제는 말과 글이 다른 모순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려는 의지의 작용이었지만, 더 소중한 것은 백성들과 소통하고 역사까지 배려의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베풀고 세제를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려 해도 글을 몰라 지나쳐 버리고 어두운 세월을 사는 백성들에게, 삶의 통로를 열어 주어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한글이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글을 쓸 줄 몰라 호소할 길이 막혀 있는 백성들이 가엾고 안타까운 나머지, 직접 자음·모음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 주고 광명을 찾아준 글이 바로 한글이다.

만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

겠는가! 이처럼 임금이 직접 창제한 글은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1446년 반포된 10월 9일 한글날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려야 할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도, 이 날이 바로 한글을 창제하여 지식의 나눔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자존심을 찾아주고 밝은 길을 펼친, 영원한 민족의 큰 스승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참모로 인군을 중심에 놓고 가치를 창조하였으며 스스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세종은 따뜻한 인간애로부터 출발하여 합리적인 국가 운영, 균형 잡힌 인재 등용, 포용과 조화 그리고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세종은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시대적 통찰력으로 자주적이며 고유한 민족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한글 창제라는 찬란한 업적을 남기고 문화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높은 이상과 넓은 가슴으로 민족과 미래를 품고 앞날을 열어 간 세종대왕. 대왕의 리더십은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 자긍심과 창의성을 가슴에 새겨 주고 이어가야 할 위대한 교훈의 메시지가

## 社說

### 공공기관이 자릿세 받고 장사 나섰더니

공공교통문화연수원이 돈을 받고 공공장소를 불법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운수 종사자들의 편의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익사업을 벌이던 공공기관의 탈법과 윤리 위반을 전반적으로 살펴 바로 잡아야겠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울 초 대강당 앞 로비 공간(약 10㎡)을 한 화재보험사와 1200만 원, 오일판매업자와 500만 원에 수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보험사와 오일판매업자는 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참석자들에게 각각 자사의 상품을 홍보·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는 영리 목적으로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허용되더라도 공고 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

연수원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광주시의 지침 때문에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색한 변명이다. 광주시가 불법까지 저질러도 좋다

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컸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연수원의 행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간 2만 명이 가까운 교육 대상자가 오는 연수원 로비를 특정 업체에 영업장소로 내줘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이하이다.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모르지만 불법인 만큼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도 문제다. 교육을 받을 수 많은 운수 종사자들의 편의 시설로 이용돼야 할 로비가 상당 기간 동안 눈발이 장소로 쓰였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광주시는 뉘그러냐 탈법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시켰지만 관리 소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익 증대도 좋지만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면 기본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 문화로 먹고 사는 꿈꾸는 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과 더불어'를 주제로 지난달 15일 개막한 2015광주디자인 비엔날레가 디자인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순항하고 있다. 폐막을 10여 일 앞둔 현재, 행사장인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관람객 행렬이 이어져 목표치인 1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는 6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년 대회보다 50% 삭감된 예산 등 악조건 속에서 일궈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추진단 등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상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비엔날레 재단이 주관한 예전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예술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들면 알베르도 메다와 남양조명공업(주)이 손잡고 제작한 '메카노조명'은 사용자가 직접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지역 도자기 업체인 (주)인스나인은 '데이블웨

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 디자이너 정수 씨와 엘피 스튜디오가 협업한 '지 보틀'(G-Bottle)은 휴대용 물병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여기에 디자이너 한경하 씨와 광주금형이 제작한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틀'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들이 선보인 기발한 주방용품들은 관람객의 구매 1순위 상품이다. 예술과 미학을 강조한 예년 대회에선 보기 힘든 올해 행사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상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비엔날레 재단이 주관한 예전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예술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들면 알베르도 메다와 남양조명공업(주)이 손잡고 제작한 '메카노조명'은 사용자가 직접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지역 도자기 업체인 (주)인스나인은 '데이블웨

## 의료칼럼

### 코의 미학



고 덕 호  
대교 성형외과 원장

고정성형술이란 조직의 결손은 없지만 위치가 잘못된 것을 정상 상태로 환원해주는 것을 말하고, 코재건성형술이란 조직 결손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코미용수술이라 하면 코고정성형술도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다. 코미용수술의 목표는 심미적으로는 모양이 아름다운 코를, 해부생리학적으로는 기능이 정상인 코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 코는 기능적 기관이므로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능도 중요하다. 모양을 아름답게 고치려다가 해부생리학적 구조와 기능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코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이다. 정확한 분석은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수술 후 결과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코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먼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피부 부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코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코끝의 섬세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부가 너무 얇으면 사소한 실수가 바로 보이기 때문

에 주의해야 한다. 코수술은 얼굴에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코가 커지면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코가 높아지면 이마와 광대는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이 돌출돼 있을 때는 양악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코끝을 올리고 턱끝을 올리면 돌출입이 확연하게 들어가 보인다.

아름다운 코는 어떤 모양일까? 좌우가 대칭이고 얼굴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코이다. 특히 콧등·코끝·입술이 균형 잡혀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미용수술이란 단순히 낮은 코를 높은 코로 크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백인의 코는 높고 곧고 곧아서 조각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극동지역 동양인의 코는 부드럽게 보이고 코끝이 둥그스름하다. 만약 극동지역 동양인의 코를 백인의 코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동양인의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극동지역 동양인은 코미용성형을 할 때는 얼굴에 조화가 되는 코 모양으로 만

들어야 한다.

인류학자와 범의학자들은 남녀를 구별할 때 주로 턱골, 코 및 이마의 특징을 참고한다. 남자를 남성 담게 보이도록 그리고 여자를 여성 담게 보이도록 고치려면 이 세 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코미용수술이란 변형된 상태에 따라 코를 낮춰주거나 돋워주고, 코이마각을 새로고쳐주고, 굵은 코종격의 콧등을 바로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코미용수술이 주로 여성들에게 시행되지만 남성들에게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코미용수술은 1차 수술을 잘못해 놓으면 개선하기가 무척 어렵다. 개선한다는 것이 자칫 점점 고약하게 만들어 놓기 십상이다.

코미용수술을 하려면 우선 다른 어느 부위의 미용수술 때보다도 수술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코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얼굴 전체 그 중에서도 이마와 턱끝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술해야 한다.

## 기 고

### 임금피크제와 '노마지지(老馬之智)'



나 석 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정책본부장

다. 곧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도 '내 일'이 될 터라,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크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보장형'이 있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57세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사업주는 숙련된 고급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정년연장형은 정부지원금도 지급돼 대상자의 실질 급여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정년보장형'이다. 현재의 60세 정년을 연장 없이 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분명 강제적인 임금 삭감이다. 당연히 정년연장형 대상자보다 상실감을 크게 느끼면서 정부에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 지원금은 현재 정년연장형에만 지급되고 정년보장형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노마지지(老馬之智)'를 인정치 않겠다는 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반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중요한 위치의 연령대다. 이들이 뒷방으로 밀려나 박탈감

로 위축되는 것은 회사나 본인에게 큰 손해가 아닌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마(老馬)'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살리고 조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나마 제도적 장치가 잘 보장된 공공기관이 이렇진대, 민간기업에선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우려도 생긴다. 실제로 이런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용절감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정원과 채용을 몇 명 더 늘리는 임시방편책이 과연 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는지 의문스럽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꼭 필요한 인원을 눈치 보지 않고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점수 때문에 필요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유지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기관마다 결원율이 5%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기관평가 때문에 고스란히 비어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생산성, 근로자의 조직충성도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강제적인 임금피크제 지침만 내리고 보상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은 여러 계층과 세대별 차이를 수 있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다.

정년보장형도 정년연장형처럼 지원금 등을 지원해야, 기업 역시 지원기준에 맞춰 신채용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근로자의 주머니로 해결하는 임시방편책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대책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이는 숫자여 불과하다고 했던가. 환갑도 젊다는 요즘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로 상처받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한다. '정년'과 '청년'이 모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보완정책을 기대해본다.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2년 전 일이다.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 길에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봤다. 김광보 연출가의 '그게 아닌데'라는 작품. 100석도 안 되는 작은 극장인데다 마지막 공연까지 겹쳐 전석 매진이었다. "떨리서 왔다"며 사정해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작품은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임팩트 있는 연출과 주연 배우의 연기가 압권이었다. 낮을 놓고 보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극장을 나섰다.

전철역으로 향하는 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혹시 '그게 아닌데'를 보지 않았나?"는 거였다. 같은 줄에 앉아 공연을 봤는데 내가 작품을 너무 좋아하더라. 자신도 작품에 푹 빠졌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말을 건넸다고 했다. 평소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구나"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다. 커피숍에서 연극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서울 연극판을 잘 아는 이라 재미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관람한 후 식당에 들렀다. 4시간 40분에 이르는 공연이 끝난 시간은 밤 11시 10분. 공연을 위해 서

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 디자이너 정수 씨와 엘피 스튜디오가 협업한 '지 보틀'(G-Bottle)은 휴대용 물병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여기에 디자이너 한경하 씨와 광주금형이 제작한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틀'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들이 선보인 기발한 주방용품들은 관람객의 구매 1순위 상품이다. 예술과 미학을 강조한 예년 대회에선 보기 힘든 올해 행사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상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비엔날레 재단이 주관한 예전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예술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들면 알베르도 메다와 남양조명공업(주)이 손잡고 제작한 '메카노조명'은 사용자가 직접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지역 도자기 업체인 (주)인스나인은 '데이블웨

타인에게 말 걸기

아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술의 힘 아닐까. 이번 주말, '렛미인'의 서늘한 매력과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유쾌함을 아는 이라면 스웨덴영화제(7~12일 광주극장·무료)를 찾는 것도 좋겠다. '광주 미술 어제와 오늘'전(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디자인비엔날레도 놓치지 마길다.

일행이 있어도 좋고, 홀로라도 상관 없다. 전시장이나 극장을 나갈 때 누군가가 말을 건넬지도, 혹은 당신이 누군가를 붙잡아도 모르니까. 서울의 그녀와 공연 패기자를 예매해 전면에 다시 올 거라 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 있으리라.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어 시리즈'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 디자이너 정수 씨와 엘피 스튜디오가 협업한 '지 보틀'(G-Bottle)은 휴대용 물병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여기에 디자이너 한경하 씨와 광주금형이 제작한 '자연의 풍경을 담은 키친틀'은 이미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들이 선보인 기발한 주방용품들은 관람객의 구매 1순위 상품이다. 예술과 미학을 강조한 예년 대회에선 보기 힘든 올해 행사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한 상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비엔날레 재단이 주관한 예전의 디자인 비엔날레가 예술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들면 알베르도 메다와 남양조명공업(주)이 손잡고 제작한 '메카노조명'은 사용자가 직접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지역 도자기 업체인 (주)인스나인은 '데이블웨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